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8.8.5.(토) ~ 2018.8.2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는 벤쿠버에 위치해 있고 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걸어서 5분거리에 스카이트레인 역이 있다. 학교 내에는 식당, 카페, 서브웨이 등이 있어 커피와 음식을 사먹기 쉽고, 싸운 점심도 식당에서 먹을 수 있다. 도서관, 서점, 컴퓨터 실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특히 서점에는 옷과 필기구, 노트 등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내가 갔을 때에는 방학을 하여 주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아시아인이 많았다.
수업	우리 반에는 주로 한국인이 많았고 일본인 6명, 태국에서 온 친구도 한명 있었다. 첫째주에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벤쿠버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다. 덕분에 벤쿠버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을 알게 되어 좋았다. 둘째주, 셋째 주에는 서로 다른 문화 그리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수업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도록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 졌으며 어렵지 않았다. 과제의 양도 10분-20분 내지로 끝낼 수 있었으며 간단한 과제가 일주일에 두 번정도 있었다. journal은 3번정도 쓰게 되는데 10줄 정도로 자신의 의견을 쓰는 과제이다. 수업은 학교에서 제공해준 바인더와 펜을 준비하면 되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첫 번째 주에는 'Discovery vancouver'와 카야킹이 진행 되었다.

	'Discovery vancouver'는 밴쿠버의 시내와 관광지들을 둘러보는 활동이다. 6명이 한 팀이 되어 시내버스와 아쿠아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다닌다. 이 날은 거의 10개 이상의 장소를 돌아다니는데 장소마다 한번 둘러보고 사진만 찍는 정도이다. 활동지를 하나씩 나누어 주는데 그 매뉴얼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 카야킹은 스쿨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Deep cove로 이동하여 진행되었다. 2시간정도 타는데 많이 젖는 활동이라 들었지만 하나도 젖지 않았다. 여벌옷과 수건을 준비해 갔지만 필요없었고 혹시 의자에 물이 묻어 조금 젖은 정도는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금방 마른다. 또 햇볕이 굉장히 강해 선글라스가 필수이다. 나는 선글라스를 준비해 가지 않아 캐나다 현지에서 하나 구매하였다. 두 번째 주에는 밴쿠버 아쿠아리움을 다녀왔다. 아쿠아리움이 스텐리 파크 내에 위치해 있어 스쿨버스를 타고 가서 스텐리 파크로 이동하였다.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각자 알아서 오기 때문에 스텐리 파크나 근처 관광지를 보고 오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주에는 휘슬러와 밴쿠버 박물관에 다녀왔다. 휘슬러에서는 높은 산이라 날씨가 매우 춥다고 하여 겹옷을 챙기라 했지만 그냥 두꺼운 긴팔 정도가 괜찮을 것 같다. 생각보다 따뜻하고 또 조금 걸으면 덥다. 휘슬러 가기 일주일 전 큰 산불이 나서 연기가 가득해 산의 모습을 제대로 보진 못했으나 하늘이 맑았다면 정말 풍경이 멋진 곳이다. 모든 활동은 학교에서 미리 지불되어 내가 필요한 돈은 없으나 가서 점심이나 간식을 사먹게 된다면 필요하다. 거기는 다른 곳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돈은 넉넉히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3주동안 25도에서 30도 정도로 매우 날씨가 맑았다. 하지만 아침저녁으로 는 일교차가 심해 쌀쌀했다. 한번 비가 오긴 했으나 조금 내리다 말았다.
안전	너무 밤늦게만 다니지 않는다면 매우 안전하다. 해도 늦게 지는 편이라 저녁에도 밝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다운타운 같은 곳은 밝지만 홈리스들이 많고, 주택 가에는 가로등도 희미하고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무섭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빨래, 화장실 이용, 현관문 잠금 등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딸, 사위 그리고 2살 아이가 있었고 분위기는 화목하였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나는 홈스테이에서 준비해준 음식에 전반적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밥을 먹었다. 점심은 주로 샌드위치나 볶음밥을 주셨고 저녁메뉴도 한국음식, 필리핀음식, 중국음식 등 매번 다양했다. 가끔은 피자나 치킨 등을 시켜주시기도 했다.
교통	주로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했으며 홈스테이에서 걸어서 5분내지 10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한번 환승하면 학교에 도착하였다. 20-30분 내로 학교에 도착하였고 가는 길을 어렵지 않았다. 홈스트맘이 학교에 가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구글맵도 매우 잘 나와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다. 버스는 10분간격으로 자주 운행하여 대기를 오래하는 일은 많이 없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858,7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150	
쇼핑	400	
입장료	50	
합계	600달러(캐나다)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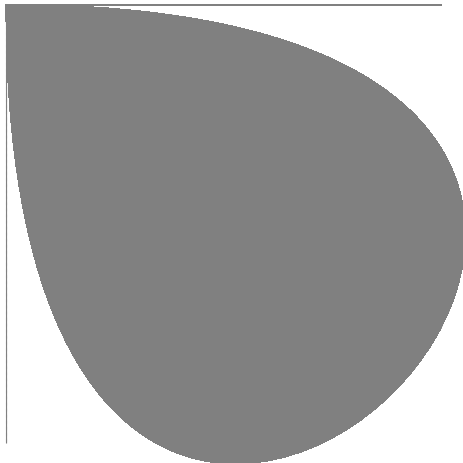
아침, 저녁으로 꽤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아우터를 꼭 하나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얇은 가디건 정도가 괜찮다. 나는 데이터 유심을 5G정도 해갔으나 6,7기가 정도 사용하였다. 주로 구글맵과 카카오톡, 네이버 검색 등만 이용하였지만 5기가가 초과되어 마지막 5일은 카페나 학교 등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구글 맵을 치고 다녔다. 2기기도 못 쓴 사람들도 있었으나 학교를 마치고 여러 곳을 둘러볼 예정이라면 넉넉히 해가는 것이 좋다. 나는 어디가서 잘 적응하는 스타일이라 한국음식이 안 그리울 줄 알았지만 삼주째 되니 한국음식이 많이 생각이 났다. 하지만 한인마트나 T&T 등 아시아 마트가 많아 컵라면은 쉽게 구할 수 있다. 1.5달러면 하나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지 라면을 사갈 필요는 없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캐나다에 단기 어학연수를 간 이유가 영어에 대한 접촉 기회였다. 학교에 가거나, 집에서, 물건을 사거나, 여행을 다닐 때 모두 영어를 사용해야 했기에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 한국인이 많았다면 한국어를 많이 사용했을 텐데 학생들도 주로 일본인이 대다수라 반 친구들과도 모두 영어로 대화 하였다. 다 와서 가장 좋은 점은 영어권 나라에서 영어에 대한 접 촉 기회를 늘린 것 이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었다.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과 태도, 생각 등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심지어 이동하며 버스를 타는 와중에도 버스기사 그리고 같이 탄 승객들의 태도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또한 사람들의 여유로움과 삶을 즐기는 태도도 보고 배울 점이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canada place	presentation
	
벤쿠버 박물관	잉글리쉬 베이